

여수소방서 김현서 소방장 '영웅소방관' 선정

'올해의 영웅소방관' 영예...도지사 표창 전수



여수소방서는 제9회 '올해의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된 김현서 소방장에게 도지사 표창을 전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의 영웅소방관'은 평소 일선 소방관서에서 헌신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전남 안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전사 부사관 출신인 김현서 소방장은 2010년 8월 구조특채로 소방에 입문하여 12년 동안 6천여건의 화재·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2020년 구례군 집중호우에 고립된 마을주민

100여 명을 구조하며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소방대원들의 귀감이 된 바 있다.

김현서 소방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달승 여수소방서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며, 평소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동료들에게 모범을 보인 김현서 소방장이 영웅소방관에 선정된 걸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호 기자

포토뉴스



순천시 남제동, 원협 등 기관·단체 후원물품 전달 순천시 남제동에서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후원 물품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순천원예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120만원 상당 식료품, 19일 성남초도 바자회 수익금 전액(44만7000원)을, 22일 연우산업안전은 후원 물품(김, 라면) 총 400박스(약 5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 봉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후원금 기탁 광양시 봉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강면에 이웃사랑 후원금 110만 원을 기탁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동구, 음식쓰레기 감량 우수 아파트 선정

최대 16.2%·평균 8% 줄어...온실가스 배출감소 기여



동구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동주택 8곳을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아파트 세대수 기준 600세대 이상(A그룹), 600세대 미만(B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 평가했다. 광주환경공단의 RFID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배출량을 확인해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세대별

배출량 ▲주민참여도 등을 심사해 최종 8개 우수 아파트를 선정했다. 평가 결과 공동주택 30개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전년 대비 평균 6.8% 감소했으며 선정된 8개소 우수 아파트는 최대 16.2% 평균 8% 감량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기 기자

신가동 본향교회,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광산구 신가동 본향교회가 지난

25일 성탄절을 맞아 라면 100박스와 선물상자 100박스를 신가동 행복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성탄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본향교회 성도들이 준비했다. 신가동은 후원 물품을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 예정이다. /이동기 기자

광주여상 '탄매경 TEST' 전국 1위...최우수학교 등 8회 수상

6년 연속 최우수학생도...금융·경제·회계·사무 최우수 입증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가 지난 27일 '한국에 탁월제원(KSD) 꿈 성장 장학사업 탄매경 TEST'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28일 광주여상에 따르면 '탄매경 테스트'는 KSD 나눔재단이 주관했으며, 시상식은 KSD 서울 사무소에

서 명실상부 금융·경제 분야 최고의 상업계 특성고임을 증명했다.

이번 대회에는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명성이 있는 특성고교와 일반고 60여 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

대회는 동아리 대항전 성격으로 진행됐다. 광주여상은 1학년(강수현, 신지호), 2학년(정가은, 위시현, 염희지, 조은별, 하다운, 류혜림, 남혜빈, 권은혜)학생이 한 팀으로 대회에 참가해 전국 1위를 차지하며 금융·경제 교육 분야에서 최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작년 대회에 2학년으로 참가해 전국 1위를 차지했던 학생들은 올해 3학년이 돼 취업 준비에 매진했다.

그 결과 KDB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에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됐다. 올해 수상한 학생들도 선배들의 우수한 성과를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기 기자

목포대학교, 제9대 송하철 총장 취임식 개최



국립목포대학교 제9대 송하철 신임 총장 취임식이 27일 오후 2시에 70주년 기념관 청강아카데미 아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식전 행사로 서예가 죽진 송홍법 선생이 송하철 신임 총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붓글씨(거필) '眞理의 殿堂 목포대학교'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취임식은 송하철 총장의 약력 소개와 외부 주요 기관장의 축사와 박지원 전 국정원 원장의 축하 영상메시지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새로 임명된 보직 교수들과 역대 총장단, 전진우 총동문회장장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송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송하철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라 목포대학교에 부임한 것을 평생의 공지로 삼고 살아왔으며, 개교 100년에도 지역과 국가사회에 굳건한 위상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4년간 "힘이 넘치는 대학, 행복이 가득한 대학"으로 목포대학교의 힘찬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대한건설협 광주시회, 5개 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500만원씩 총 2500만원 전달...해마다 사회공헌 이어가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28일 광주 5개 구청에 각각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권형안 기자

김영주 회장을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임원진은 지난 27일과 28일 5개 자치구를 방문해 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했다.

광주시회는 해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주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지역 건설업계의 작은 정성과 사랑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 희망과 용기를 갖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후원 릴레이'

강추위 겪친 연말 장학금 4100만원 전달 '훈훈'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6일 순천시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 ㈜주원이테크 2000만원, ㈜대진 1000만원, ㈜더블유 5백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400만원, 바니스바니켓 100만원, 재순천 광양시향우회가 100만 원을 기탁했다. 특히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는 지금까지 2500만원을 기탁했으며,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후원회에서도 2022년 4분기 모금액인 1억원의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폭설이 내리고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순천의 인재 양성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P&O케미칼, 광양 태인동에 성금 전달

임직원들 광양사랑상품권 150만 원 기탁



㈜P&O케미칼 임직원이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양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태인동사무소에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태인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달식에 참여한 ㈜P&O케미칼은 "연말을 맞아 P&O케미칼 임직원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성금이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수 태인동장은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 실천에 앞장서 주신 ㈜P&O케미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외된 분들을 위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울촌·해룡산단협의회 '사랑의 선물' 전달

산단 내 200여 개 입주기업 임직원, 순천시 해룡면에 환원



울촌·해룡산단협의회는 지난 27일 순천시 해룡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해룡면 주민을 위한 '사랑의 선물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울촌제1산단과 해룡산단 내 약 200여 개의 입주기업 임직원들이 영업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환원한다는 의미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울촌·해룡산단협의회는 '사랑의

선물' 전달행사에서 백미와 라면, 화장지 등 총 3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오용 회장은 "산단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연말연시 추운 날씨에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울촌·해룡산단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의 기자